

“위험천만 등하굣길”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초등학교 인근 도로 양옆 점령
광주 자치구 3년간 9만건 적발
학부모 “아이들 다칠까 걱정돼”
“보도·차도 구간 확실히 나눠야”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볼썽 튀어 나오는 차량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서광초등학교 앞.

도로 바닥에 크게 적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도로 양 옆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했다.

주차 차량으로 비좁아진 도로는 차량 한대가 지나가기조차 버거워 보였고, 학생들은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해 갓길에 세워진 차량들 사이로 몸을 숨겨야하는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인 김호승(50)씨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 모습을 자주 본다. 학교 앞이라 아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데



2일 찾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서광초등학교 앞. 주정차가 불가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혹여 큰 사고로 이어질까봐 걱정된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문제는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광주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같은 날 찾은 광산구 월곡동 영천초등학교 주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기둥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세워둔 모습이었다.

직장인 김연경(48)씨는 “어린 자녀들을 둔 입장에서 혹시나 운전자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며 “단속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더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몇몇 운전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부족한 주차공간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한 한 시민은 “잠깐이면 괜찮을거라 생각해 빈 곳에 차를 세워뒀다”고 답했다.

각 지자체는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에도 어린이보호구



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6월 한달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총 1779건이 적발됐으며 2022년 4만 7893건, 2023년 3만3511건, 2024년 2만 9425건 등 3년간 9만건을 훌쩍 넘겼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매번 CCTV와 단속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도 꾸준히 단속에 나서고 있

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보도와 차도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곳이 많아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많이 올라왔으나, 현재 광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곳이 많아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시나 지자체 등이 나서 시설 보완을 통해 확실하게 보도와 차도 구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광주 남구서 상수도관 파열, 복구작업 나서

2일 낮 수도관 노후화로 구멍 발생
주택가 일부 잠기고 땅꺼짐 현상도

광주광역시 남구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주택이 잠기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2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한 도로 인근의 상수도관이 노후화로 인해 파열됐다.

관계당국과 남구청 직원 30여명은 현장에서 출동해 토사 잔여물 처리와 안전

조치에 나섰다. 이 사고로 인해 물이 흘러 나오면서 도로와 인근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상수도관 인근 토사도 유실돼 도로 일부에서 땅 꺼짐 현상도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3년 전 매설한 상수관로 연결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복구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정준 기자

장마라더니 연일 폭염 왜? 12일까지 비소식 없어

장마 빨리 시작됐지만 폭염만
정체전선 못내려와 비 안올듯

광주·전남에 장마가 시작됐지만 비 대신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지난달 20일 장마가 시작됐다. 평년(6월23일)에 비해 3일 빨리 시작된 장마로 첫 장맛비부터 최대 15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

이후 찜통더위가 찾아왔으며 지난달 27일부터는 이날까지 6일동안 폭염특보

가 이어지고 있다.

밤에도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태풍의 시작이라 불리는 열대 요란이 현재 필리핀 동쪽에서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쪽에서 내려오지 못해 장마가 사라진 듯한 날씨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로 광주·전남 지역의 체감온도와 낮 최고기온은 당분간 33~35도를

웃돌겠다. 오는 12일까지도 비는 예보되지 않았다.

치솟은 기온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는 내릴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뿐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울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실내의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 등에서는 관측 환경보다 온도가 더 높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 한 아파트서 불... 인명피해 없어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민 5명이 대피했다.

2일 광주 북부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6분께 북구 용봉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원 70명을 투입해 1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세대 내부와 집기류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2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

보성서 경운기 추돌해 부부 숨지게 한 50대 입건

전라남도 보성군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탑승한 부부를 숨지게 한 50대 경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2일 보성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5분께 보성군 미력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B(88)씨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B씨와 동승

자인 그의 아내 C(8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운기에 탄 부부는 사고로 인해 도로로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준 기자

광주서 보이스포싱 현금 수거책 40대 구속...피해액 1억여원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포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한국계 중국인이 구속됐다.

2일 광주 북부경찰은 보이스포싱 현금 수거책 40대 남성 한국계 중국인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달여간 금강원과 검사 등을 사칭, ‘명의로용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1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2600여만원의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해 6월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시작, 보이스포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거 금액의 1%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3일 송치할 예정이다.

정승우 기자

나주서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환경미화원 징역7년 구형

검찰이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환경미화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간제 환경미화원 A(64)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나주의 한 카페에서 동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자, 다음 날 출근

길에 흉기를 들고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